1부 세 가지 일반 원리

죄 죽이기 2편 용서받았는데 왜 평생 싸워야 할까 · 죄 죽이기는 신자의 평생 의무

1부 2장 「죄를 죽이기 위한 첫 번째 일반 원리」(42~56쪽)

> ❓ **이미 용서받았는데 매일 죄와 싸우라니, 그러면 은혜가 부족하다는 거야?**

🧭 흐름 한눈에

오웬은 먼저 두 가지 권세를 구별합니다. 신자는 자기를 정죄하는 죄의 권세에서는 이미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자기 안에 남은 죄의 권세는 평생 죽여야 합니다. 그 근거로 여섯 가지 이유를 듭니다. 죄는 늘 남아 있고, 쉬지 않고 일하며, 내버려 두면 가장 큰 죄까지 자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싸움을 위해 성령과 새 본성을 주셨습니다. 이 일을 소홀히 하면 영혼이 무너지고, 이 일 없이는 거룩함에서 자랄 수 없습니다. 원리를 확정한 뒤 오웬은 빛과 은사는 넘치는데 죄 죽이기는 드문 교회를 탄식합니다. 그리고 죄를 죽이지 않는 삶이 자신과 이웃에게 끼치는 해악을 짚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평생의 싸움은 은혜가 부족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은혜가 우리 안에서 살아 일한다는 표시입니다.

• 지침 카드

📜 절별 정리

📜 1. 출발점: 해방된 신자도 평생 죄를 죽여야 한다 (2장)

신자는 첫째에서는 이미 해방되었지만, 둘째는 평생 죽여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핵심 근거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신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열매 맺는 가지를 아버지께서 계속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은혜와 특권이 누구보다 컸던 바울조차 자기 몸을 쳐 복종시켰습니다. 그러니 “이미 죽었으니 안 해도 된다”는 핑계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1. 정죄에서는 해방, 남은 죄와는 싸움
2. 죽이라는 명령은 살아난 신자에게 주어짐
3.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평생 계속됨
4. 바울도 몸을 쳐 복종시킴
5. 싸움은 용서를 얻는 조건이 아님

> ★ **골로새서 3:5**
> 이 편의 중심 명령: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 **골로새서 3:1**
>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이들
>
>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 **골로새서 3:3**
>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들에게도 명령은 유효함
>
>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 **골로새서 3:4**
> 영광 중에 나타날 자들도 이 일을 해야 함
>
>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9:27

탁월한 바울도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죄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희를 죽이게 될 것이다."

📜 2. 이유 1: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신자 안에는 언제나 죄가 있다 (2장)

죄가 늘 있으니 죄 죽이기도 늘 해야 합니다. 오웬은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온전함에 이를 수 있다는 완전주의를 짧게 짚습니다. 그들은 계명 하나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원래부터 있는 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생각에 맞게 낮춥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모르는 새 의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 오웬의 진단입니다.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고, 부분적으로만 알며,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릅니다. 원수가 살아 있는데 공격을 멈추는 군인은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죄가 있는 동안 싸움도 계속됨
2. 완전주의는 법의 기준을 낮춘 결과
3. 성경은 '아직 이루지 못함'을 말함
4.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중
5. 원수가 살아 있으면 멈추지 않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고린도후서 4:16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진행형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 고린도전서 13:12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알기에 어둠이 남아 있음

베드로후서 3:18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며 어둠을 걷어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3)

★ 갈라디아서 5:17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슬러 원하는 대로 못 함

요한일서 1:8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 로마서 7:24

신자는 여전히 '사망의 몸'을 지님

빌립보서 3:21

이 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몸이 변화될 때

>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 3. 이유 2: 내재하는 죄는 쉬지 않고 육신의 행실을 만들어 낸다 (2장)

죄는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 움직이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열매를 맺으려 합니다. 오웬은 죄가 우리를 내버려 둔다면 우리도 죄를 내버려 둘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조용해 보이는 죄도 깊은 물처럼 아래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죄는 악으로 끌어당기고, 선을 막거나 더럽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자기 경건이나 섬김이 죄에 전혀 물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가 이기든 우리가 이기든, 승부가 나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1. 죄는 늘 움직이고 유혹하고 잉태함
2. 고요한 죄는 깊이 흐르는 물
3. 악으로 끌고, 선을 막고, 교제를 막음
4. 승부 없는 날은 하루도 없음
5. 하루 휴전을 지키는 죄는 없음

> **★ 로마서 7:23**
> 지체의 법이 마음의 법과 늘 싸움

> **야고보서 4:5**
> 오웬은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욕망하는 성향의 증거로 읽음
>
>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 **★ 갈라디아서 5:17**
> 육체가 성령을 거슬러 원하는 선을 못 하게 함

★ 로마서 7:18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음

★ 로마서 7:19

원하는 선은 못 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함

히브리서 12:1

죄는 쉽게 얽매는 것, 곧 달음질을 훼방함

>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죄가 우리를 이기거나 우리가 죄를 이기거나 하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다."

📜 4. 이유 3: 내버려 둔 죄는 결국 영혼을 파멸로 끌고 간다 (2장)

죽이지 않은 죄는 마음을 어지럽히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혼을 무너뜨리는 큰 죄를 낳습니다. 오웬의 통찰은 "죄는 언제나 최대치를 노린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죄는 더러운 눈길을 간음으로, 탐욕을 압제로, 불신의 생각을 무신론으로 키웁니다. 첫걸음은 대개 온건해 보여서 영혼은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나가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죄에 무감각해진 만큼 마음은 굳어 갑니다. 이 흐름을 막는 길은 죄의 뿌리를 시들게 하는 일을 꾸준히 하는 것뿐입니다.

1. 죄는 언제나 끝까지 가려 함
2. 눈길→간음, 탐욕→압제, 불신→무신론
3. 온건한 첫걸음이 경계를 풀게 함
4. 무감각해진 만큼 마음이 굳어짐

갈라디아서 5:19-21

죽이지 않은 죄가 맺는 열매의 목록

19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히브리서 3:13

죄의 속임수가 마음을 완고하게 함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 5. 이유 4: 성령과 새 본성은 싸우라고 주신 원군이다 (2장)

이 절이 이 편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성령과 새 본성을 주셨고, 그래서 신자 안에는 죄를 거스르는 실제 힘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17은 육체가 성령을 거스른다고만 말하지 않고, 성령도 육체를 거스르신다고 말합니다. 오웬은 싸우지 않는 것을 두 가지로 꼬집습니다. 첫째는 부당함입니다. 한쪽 전사를 묶어 두고 다른 쪽이 마음대로 찌르게 두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는 어리석음입니다. 나를 살리려는 편을 묶고 나를 망하게 하려는 편을 풀어 주는 셈입니다. 받은 은혜를 쓰지 않으면서 더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1. 성령도 육체를 거스르신다
2. 신자 안의 싸움은 실제 싸움
3. 싸우지 않음은 내 편을 묶는 일
4.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원군
5. 받은 은혜는 쓰라고 주신 것

성령이 육체를 거스르신다는 반대편 진실

베드로후서 1:4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는 정욕의 썩음을 피함

>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 로마서 7:23

마음의 법과 지체의 법의 싸움

📜 6. 이유 5: 소홀히 하면 영혼이 무너진다 (2장)

이 의무를 게을리하면 고린도후서 4:16과 정반대가 됩니다. 속사람은 낡아 가고 겉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오웬은 이것을 이렇게 그립니다. 죄는 점점 강해지는 다윗의 집이 되고, 은혜는 점점 약해지는 사울의 집이 됩니다. 은혜는 쓰고 훈련하고 승리를 맛볼 때 자랍니다. 내버려 두면 은혜는 시들고, 큰 패배가 쌓이면 영혼은 하나님을 우러러볼 힘조차 잃습니다. 겸손하고 예배에 열심이던 사람도 이 의무를 놓으면 세상적이고 냉랭하고 화 잘 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웬은 동시에 교만하고 비판적인 마음으로 하는 '죄 죽이기'도 복음적이지 않다고 탄식합니다. 죄 죽이기는 자기 의를 쌓는 고행이 아닙니다.

1. 속사람은 낡고 겉사람이 새로워짐
2. 쓰지 않는 은혜는 시든다
3. 패배가 쌓이면 일어설 힘을 잃음
4. 경건하던 사람도 냉랭해질 수 있음
5. 율법적·비판적 죄 죽이기는 가짜

고린도후서 4:16

정상 상태의 기준이며, 소홀하면 그 반대가 됨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요한계시록 3:2

남은 것들이 죽어 가는 상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히브리서 3:13

죄가 마음을 굳게 할 발판을 얻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시편 31:10

죄로 인해 뼈가 쇠하는 영혼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냄이여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시편 51:8

죄로 꺾인 뼈와 회복의 기쁨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시편 38:3-5

죄로 인해 병들고 상처가 썩는 상태

3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4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5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 **요한이서 1:8**
> 이룬 것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라
>
>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 7. 이유 6과 원리의 정리: 거룩함은 죄 죽이기 없이 자라지 않는다 (2장)

신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은혜 안에서 자라고,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그분을 닮아 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죄는 모든 거룩한 걸음을 온 힘으로 막습니다. 그러니 정욕과 싸우지 않고 거룩함에서 자랐다고 여기는 것은 착각입니다. 오웬은 거룩함을 향해 가면서 죄의 저항을 못 느낀다면 그것은 죄와 타협하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원리를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는 공로적으로 이미 죽었고, 회심할 때 죄 죽이기의 참된 토대가 놓였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가장 뛰어난 신자 안에도 죄가 남아 일하므로 날마다 죽여야 합니다.

1. 거룩함의 성장은 신자의 의무
2. 죄 죽이기 없이는 한 걸음도 못 감
3. 저항이 없다면 타협일 수 있음
4. 십자가가 토대, 회심이 시작
5. 남은 죄 때문에 평생 날마다

> **고린도후서 7:1**
>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
>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 **베드로전서 2:2**
> 젖을 사모하듯 자라 가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후서 3:18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3)

고린도후서 4:16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는 의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 8. 탄식: 빛과 은사는 넘치는데 죄 죽이기는 드물다 (2장)

오웬은 다음 원리로 넘어가기 전에 당시 교회를 향해 탄식합니다. 복음의 빛은 널리 비쳤고, 은사와 좋은 설교와 신앙 이야기가 넘쳤으며, 교인과 목회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겉으로만 세면 교회가 “누가 이 많은 자녀를 낳아 주었는가” 하고 놀랄 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은혜인 죄 죽이기로 세어 보면 그 수는 적었습니다. 게으름, 시기, 다툼, 분노, 교만,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흔했기 때문입니다. 빛을 더 받은 사람들이 겉으로 하는 절제조차 하지 않는 것이 오웬에게는 아팠습니다. 다만 그는 남의 마음속을 판단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긋습니다.

1. 빛·은사·설교는 넘치던 시대
2. 죄 죽이기로 세면 신자는 적음
3. 게으름·시기·분노·교만이 흔함
4. 아는 것과 죽이는 것은 다름

이사야 49:21

오웬이 장절 없이 빌려 온 표현. 겉으로 크게 늘어난 교회를 묘사함

> 그 때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 9. 죄를 죽이지 않을 때의 해악: 나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2장)

죄를 죽이지 않는 교인은 날마다 짓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 뿌리는 반복되는 죄에 마음이 아프지 않은 데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으니 괴로워할 필요 없다”는 생각은 은혜를 방탕의 핑계로 바꾸는 반역이라고 오웬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도, 회개를 주시려고 높아지신 그리스도도,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라고 가르치는 은혜도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주어진 것입니다. 오웬은 당시 배교한 사람 대부분이 이 문으로 나갔다고 봅니다. 이웃에게도 해가 갑니다. 사람들은 존경받는 교인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 정도는 된다”며 안심하고 굳어집니다. 또 신령한 말과 세상적인 삶이 섞인 그의 모습을 신앙의 기준으로 착각하며 속습니다.

1. 습관적 죄에 아픔이 없는 게 뿌리
2. 은혜를 핑계 삼는 것은 반역
3. 익숙한 교리가 핑계가 될 때 위험
4. 남들이 그를 보고 안심하며 굳어짐
5. 용서받았다 하며 용서하지 않음

요한일서 1:7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주어짐

>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주심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5:31

그리스도는 회개를 주시려고 높아지심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디도서 2:11-12

은혜는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라고 가르침

11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12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베드로후서 2:20

더러움을 피했다가 다시 얽매인 자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앎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 **착각과 진짜 비교판**

이것은 죄 죽이기가 아니다	이것이 죄 죽이기다
용서를 얻거나 지키려고 애쓰는 것 (정죄하는 죄의 권세는 이미 끝났다)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 내 안에 남은 죄의 권세와 평생 싸우는 것
죄가 잠잠할 때 쉬는 것	조용한 죄도 깊이 흐른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경계하는 것

이것은 죄 죽이기가 아니다	이것이 죄 죽이기다
교만하고 비판적인 마음으로 자기를 다그치고 남을 재는 것	성령이라는 원군을 의지하며 받은 은혜를 날마다 쓰는 것
빛·은사·봉사가 많으면 성숙했다고 여기는 것	그 열심 아래 숨은 시기·분노·교만과 실제로 싸우는 것

평생의 싸움은 칭의가 흔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칭의가 확실한 사람에게 성화의 싸움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싸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이 내 안에서 육체를 거스르고 계시다는 표시이므로, 이 싸움은 고행이나 자책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죄 죽이기
내 안에 남은 죄의 뿌리를 성령 안에서 날마다 약하게 만들어 끝내 이기는 일.

내재하는 죄
거듭난 뒤에도 신자 안에 남아 계속 죄 쪽으로 끌어당기는 성향.

정욕(욕망)
하나님을 거슬러 무언가를 끝없이 원하는 마음의 움직임.

육신
성경이 말하는 '육체'로, 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 안의 옛 성향.

칭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단번의 은혜.

성화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평생 거룩하게 자라 가는 과정.

성령께서 신자 안에 머무시며 새 생명으로 일하시는 것.

정죄하는 죄의 권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게 만드는 힘. 신자는 그리스도로 이미 이 힘에서 풀려났다.

육신의 행실

죄의 성향이 생각·말·행동으로 드러난 열매.

완고해짐

죄에 익숙해져 양심과 복음의 요구에 무감각해지는 상태.

💬 청년의 삶으로

✅ 이 편의 결론

- 신자는 정죄의 권세에서는 이미 해방되었고, 남은 죄와는 평생 싸웁니다. 이 싸움은 은혜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 죄는 늘 있고 늘 일하며, 내버려 두면 가장 큰 죄와 완고함으로 자랍니다.
- 하나님은 이 싸움을 위해 성령과 새 본성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 죄 죽이기 없는 거룩함은 착각이고, 은혜를 핑계 삼는 삶은 나와 이웃을 함께 무너뜨립니다.
- 죄 죽이기는 고행이나 자책이 아니라, 받은 은혜와 성령을 날마다 쓰는 믿음의 삶입니다.

📚 이 편의 장별 정리 노트

- 죄 죽이기 · 2장 첫 번째 일반 원리: 죄를 죽이는 일은 신자의 평생에 걸친 의무이다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오웬 『죄 죽이기』(CH북스, 박문재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 전문 텍스트판과 서재 정리본은 pdf.quritan.com 에 있습니다.